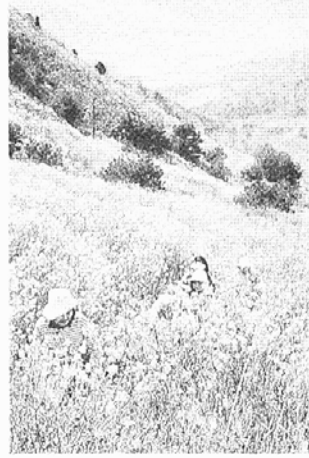




◇ 불꽃이 만개한 주말, 가족과 함께 고찰을 참배하고 갈로수와 같은 설법을 듣는 것은 산행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 물감을 쏟아부은 듯 장관을 이룬 무학산 진달래꽃밭은 봄철 가족 산행지로 첫손 꼽힌다.



포교의 역할도 독특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인 산행을 통해 산행활동을 하고 있다는 금강산우회 김대원씨는 "백운사가 있는 무학산은 사시사철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한쪽의 산수화처럼 펼쳐지는 진달래꽃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경"이라며 "사람을 찾아 산행도 다지고 등산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슴없이 봄철 산행지로 백운사를 권했다.

이밖에도 고향 선운사, 해남 대흥사, 강진 백련사, 순천 선암사 등은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하나비림을 타고 3월중순부터 피기시작하는 불꽃은 4월초쯤 만개할 예정이어서 전국의 명산명찰을 찾는 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등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가족과 함께 산사로 봄나들이를 하며 자연속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맡게 느껴 보는 것도 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산행의 한 방법일 것이다.

김준근 기자

불심·건강·화목 '일석삼조' "가족 봄나들이 산사로"

봄이다. 생성과 소생의 절기에 나들이드 크게는 때이다. 이번 휴일에는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여수 향일암으로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날 예정이다. 향일암은 시원한 다도해와 함께 위치해 있어 봄의 기운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처로도 널리 알려져 봄산행으로 가장 좋습니다.

할도 즐비하다. 더욱이 산은 각 계절마다 절경을 그려내고 고찰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사찰이 있기에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처럼 산사는 등산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갖가지 봄꽃이 만개하는 요즈음 천년고

사 울긋불긋한 진달래, 가나리 등의 꽃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면 봄나들이의 극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봄을 맞아 산행을 통해 신심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남해 호구산 용문사와 마산 무학산 백운사 등도 봄철 대표적인 산행지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일반인들도 천년 고찰서 봄정취 만끽 호구산 용문사·무학산 백운사등 명소

매달 산행을 하며 육체적 건강과 신심을 돈독히 한다는 박광민씨의 가족은 이번 주말 향일암으로 가족산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처럼 그리 높지 않고 고향 뒷산같이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사찰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문 등산객들에게도 인기를 끈다. 우리나라에는 명산이 많은 만큼 부처님의 법열이 오롯이 살아숨쉬는 천년고

찰은 봄철 가족산행지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명한 봄날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아이들에게 사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가족산행의 한 방법일 것이다. 이어 향긋한 솔냄새를 맡으면

소재한 이 사찰들은 어느곳보다 가장 먼저 싱그러움 봄내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단위 등산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 산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재의 진수와 불법의 오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산사 그 자체가 전법과

간장 '비상' ... 사찰서 만든 장류 '인기'

그름유유 파동에 뒤이은 자정면 공업용 폐지기를 소동과 발암간장 논쟁... 그리로 끌고 이어지는 식품안전성 논란이 주부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재래식방법으로 제조, 보급하고 있는 사찰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들이 주부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찰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류는 품질 좋은 콩만을 엄선, 가을에 매주를 만들어 발효시킨 후 말린다. 이듬해 봄에 약 20%의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2개월 후 매주를 건져내어 된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액상을 달여 간장을 만든 것으로 발암물질인 DCP와 불임을 유발하는 물질인 MCPD의 함유 유무는쟁에 불안해 하며, 무해한 식품을 찾아 해매

정성 깃든 무해식품 주부들 신뢰 신도회 중심 주문 생산... 비싼게 흠

는 주부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금강경동승회(회장 김재웅)의 이창운 사무국장은 "남의 건강이야 어쩌되든 내 이웃만 차리면 그만이라는 비양심적 이기주의 상훈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오늘날, 사찰에서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부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찰에서 판매되는 장류는 무해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외에도 소금 대신 죽염을 이용, 산성화 되는 현대

인들의 체질을 개선, 면역기능 및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등의 건강증진에도 한 몫을 하고 있어 식단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빅뉴스다. 사찰의 장류는 사찰 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문제작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찰장류보급의 회원들이 직접 콩을 재배, 제조 보급하고 있는 경우로 '복매주'라는 상표까지 등록해 놓고 있다. 또 돈연스님이 보급하고

있는 정선매주의 경우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 판매하는 장류는 일일이 수공으로 제조되는 관계로 왜소한 주부들을 충족시킬 만큼의 생산을 못해 예로를 겪고 있다. 이는 일반 간장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장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유통 방법 모색이 시급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장류 제조 판매 사찰

△금강경동승회 02-931-9900 △정선매주 0398-62-2710 △봉은사 02-545-1448 △구룡사 02-575-7766 △경국사 02-914-5447 △석왕사생활협동조합 032-668-0072 △축서암 0523-82-0011 △봉령사 0346-571-0556 △대구불교회관 053-627-3747 △대전불교회관 042-627-0026 △대구 법왕사 053-766-3747 △삼보사 02-352-6406

만화 법구경

* 올바른의 장 *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다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Characters discuss the value of words, the benefits of Buddhism, an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One character says,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다' (Just because you talk a lot doesn't mean you're wise). Another says, '유권자 여러분!' (Citizens!).

Advertisement for '책방 여시아문' (Cheokbang Yesiamun). Text: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Customers are always right. Especially if you are looking for Cheokbang Yesiamun). Includes contact info: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A map shows the location in Seoul.